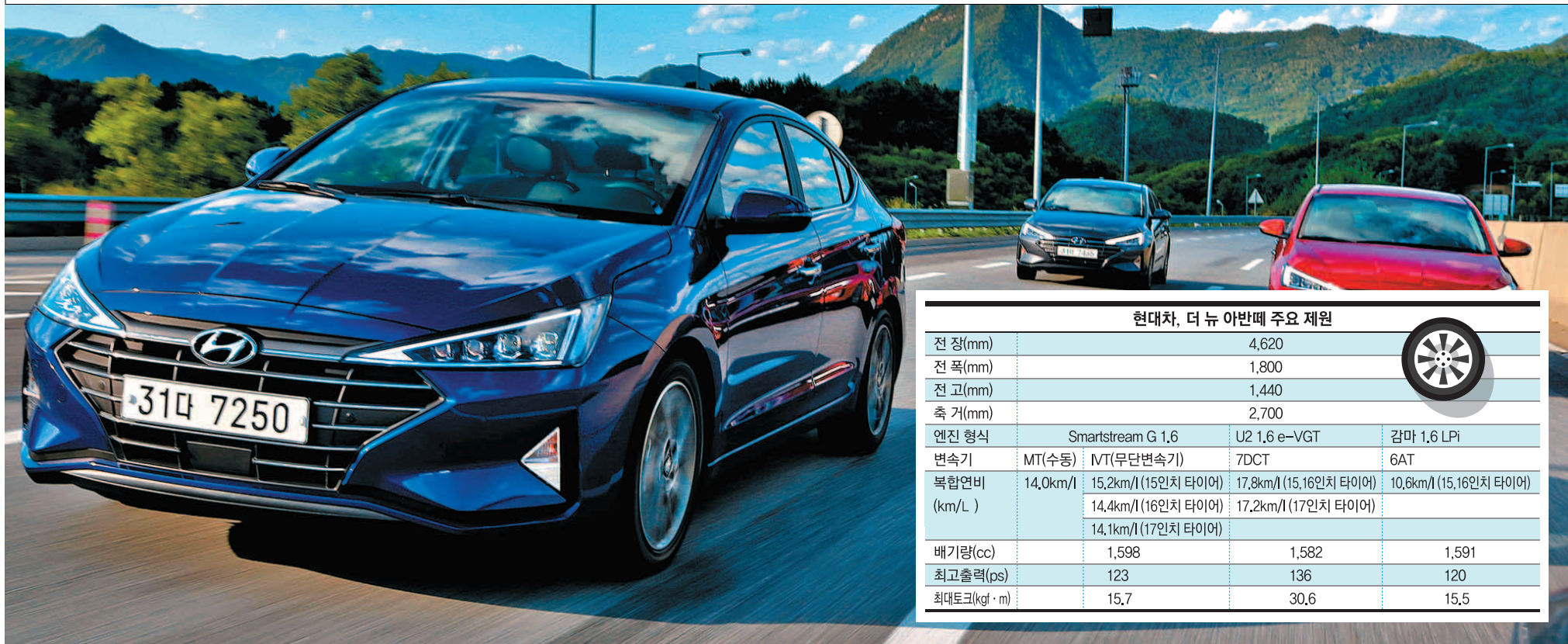




현대차 더 뉴 아반떼가 젊고 역동적인 디자인 변화와 첨단 안전 사양 신규 적용을 통해 준중형 세단 시장의 부활을 이끌 핵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가 제시한 더 뉴 아반떼의 판매 목표는 내년까지 12만대다. 사진제공 | 현대차

2030 생애 첫 차로 딱! 준중형 세단 부활 이끈다

젊은 감성의 파격적인 디자인 연비 15.2km/L로 동급 최고 다양한 능동 안전 기술 돋보여

현대차 아반떼(AD)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아반떼'가 신차 수준의 파격적인 디자인 변화와 상품성 강화를 통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차가 내세운 내수 판매 목표는 2019년까지 12만대다. 더 뉴 아반떼는 목표를 달성하고 준중형 세단의 부활을 이끌 수 있을까? 6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강원도 춘천시 라레나 골프 클럽까지 왕복 140km 구간에서 더 뉴 아반떼를 시승했다.

●파격적인 디자인 변화로 주목

아반떼는 2030 세대의 생애 첫 차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준중형 세단이다. 지난해 아반떼 고객의 67%가 생애 첫 차 구매자였고, 구입 연령은 2030세대가 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때문에 현대차는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내놓으면서 보수적인 변화가 아닌 젊은 감성에 어필할 수 있는 스포티하고 강렬한 디자인 변화를 택했다.

특히 전면부 디자인은 더욱 파격적이다. 화살촉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헤드램프와 자동차 디자인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삼각형 모양의 턴시그널램프 디자인을 적용했다. 스포티하고 역동적이라는 평가와 너무 과하고 못생겼다는 평가가 엇갈리는 지점이다. 현대차가 선택한 디자인이 과연 젊은 감성을 사로잡았는지 아닌지는 하반기

기 판매량이 말해줄 것이다. 어쨌든 사진 보다는 실물이 나은 편이고, 마음을 사로잡는 디자인까지는 아니지만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는 것처럼 크게 못생겼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탄탄한 주행 감성과 업그레이드 된 효율성

시승 차량은 가솔린 모델인 스마트스트림 G1.6 프리미엄 모델이다. 최고 출력은 123마력(6000rpm), 최대 토크는 15.7kg·m(4500rpm)이다. 여기에 연료 효율성을 높여주는 무단변속기를 결합했다.

전반적인 주행 성능은 부드럽고 묵직하다. 준중형이지만 뛰어난 정숙성과 부드러운 주행 감성은 준중급 세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준중형과 준중급 세단의 주행 감성은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느껴지던 시절은 이제 끝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기본기가 탄탄하다.

전반적인 가속 능력은 평범한 편이다. 중·고속에서 추가로 가속을 해보면 속도는 꾸준히 올라가지만 강력한 편지력은 느껴지지 않는다. 확실히 효율성을 더 강조한 느낌이다.

연비는 기대만큼 훌륭했다. 스포츠주행을 했을 때는 14~15km/L, 연비주행을 했을 때는 18~19km/L 수준의 연비를 기록했다. 다양한 능동 안전 기술도 더 뉴 아반떼를 돋보이게 하는 요소다. 스마트 크루즈컨트롤, 차로이탈방지보조 등을 갖춰 반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후방 교차추돌 경고 기능까지 신규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가솔린 모델의 가격은 1404만원~2214만원이다.

남양주 | sereno@donga.com

벤츠-서울시, 어린이 안전 캠페인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7일 서울특별시 및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어린이 교통안전 및 시민의 교통안전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캠페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14년 메르세데스-벤츠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에 소개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은 모바일키즈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한국지엠, 인천 경제 활성화 결의

한국지엠주식회사와 한국지엠 협력사가 지난 7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쉐보레 판매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차량 1000대가 팔릴 때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차량 1대씩을 기증하는 '네버 기브 업(Never Give Up)'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천시에 스파크를 전달했다.

원성열 기자

100일 만에 6000대 돌파...신형 티구안 돌풍

(누적 판매량)

전륜모델 8월 수입차 판매 2위 3000만원대 가격도 인기 비결

폭스바겐코리아의 대표 중형 SUV 신형 티구안이 지난 5월 출시 이후 100여 일만에 누적 판매량 6033대를 기록했다. 또한 8월 한 달 동안에만 전륜모델 2.0 TDI는

937대가 판매되며 전체 수입차 판매 2위에 올랐고, 4륜구동 모델도 240대가 판매됐다.

전륜 구동 모델은 국내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 신형 티구안에 새롭게 추가됐는데 전체 모델 판매의 75%를 차지하면서 티구안의 판매를 이끌었다. 이전 세대 대비 대폭 향상된 편의 및 안전사양을 갖추고도

3000만원대의 가격을 책정해 폭넓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의 슈테판 크람 사장은 “신형 티구안의 성공적인 론칭을 통해 판매 재개 이후 빠른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었다. 한국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소세 인하분이 적용된 신형 티구안의 판매 가격은 3804만8000원(기본형)부터다.

원성열 기자



이전 세대 대비 커진 차체와 강화된 상품성을 바탕으로 출시 100일만에 수입 SUV 베스트셀링 모델로 등극한 폭스바겐 신형 티구안. 사진제공 | 폭스바겐

현대차, 협력사 대금 추석 전 지급

현대차그룹은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1조2350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약 369억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추석 연휴 전 그룹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한편, 추석 맞이 임직원 사회봉사 주간 동안 소외이웃 및 결연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전기세가 확실하게 절감되는

센추리 초강력 인버터 냉·난방기

사업자등록증 OK
36개월 분납가능

45년 전통의 업소용 전문업체

(상가, 사무실, 공장, 식당, 교회 등)

2018년 빅히트! 업소용 이동식 에어컨

센추리를 구매해야하는 크나큰 이유!

1. 전기세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2. 냉방·난방 평수가 똑같은지??
3. 45년동안 고집스럽게 냉·난방기를 만든회사인지??
4. 초기비용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36개월 분할납부가 되는지??
5. 빠른 설치와 A/S가 되는지??

센추리 공식 판매처 (주) 센추리에어컨

제품구입 무료전화 **080-965-7777**